

격주간 '브레일 타임즈' 제704호

등록번호 서울 다-05099

발행일 2013년 1월 25일

발행처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발행인 겸 편집인 최동익

전화 02-6925-1121 (담당 노상미)

팩스 02-6925-1117

주소 (우)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22 (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305호

~~~~~

## 목차

포커스: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진원(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시각장애인편의증진센터 팀장)

### 장애인계 뉴스

1. 2013년 장애인 일자리사업, 어떻게 달라지나
2.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시각장애인을 위한 '착한 목소리 페스티벌' 개최
3. 장애인 교통복지 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
4. 시각장애인과 책 사이의 거리 좀 더 가까워지려면...
5. 서울시, 장애인차별금지법 전면시행 대비 웹 접근성 교육 실시
6. 경남은행, 지방은행 최초로 '점자카드' 출시
7. 시각장애인 덕정역 선로 추락...한국철도공사 상대로 1,500만원 소송
8. 양산시, 중증시각장애인에게 점자 주민등록증 발급

사람이야기: “약자를 먼저 생각하는, 친구 같이 편안한 변호사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국내 첫 시각장애인 변호사 김재왕 씨

독자마당: 소리로 마음을 읽는 선생님 / 김홍엽(천안인애학교 교사)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 동정[1월 1일~1월 15일]

알쏭달쏭한 우리말 바로 알기(172): '코르사주'와 '캠프파이어'의 순화어

## 포커스

###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이진원(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시각장애인편의증진센터 팀장)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해를 돕기 위해 시각장애인편의증진센터(이하 편의증진센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편의증진센터는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 하여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지원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다년도 계속사업으로,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및 일반 건축물에 대한 쾌적한 접근성 확보와 사회적 제약 해소, 설치에 필요한 기술지원 등의 업무를 하는 곳입니다.

운영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전국 16개 지부 및 182개 지회 직원들을 대상으로 편의시설 점검요원 양성교육을 시행하고 있는데, 교육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부분 놀라곤 합니다. 당사자 단체에 수십 년 근속하셨던 직원, 임원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인용 편의시설의 명칭과 기능에 대해 정확히 알고 계신 분들이 매우 극소수였습니다. 심지어 시각장애인용 ‘점자안내판’을 사용해 보신 분이 단 한분도 없었으며 ‘점자안내판’의 용도를 알고 계신 분도 지극히 드물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에는 무엇이 있으며 어떤 기능을 수행하고 어떻게 설치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명료하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시각장애인용 편의시설하면 가장 먼저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의 독자 분들이 ‘점자블록’을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점자블록은 정확한 보행위치와 방향을 안내하기 위해서 바닥에 설치하는 편의시설로, 쉽게 말해 바닥에 일정한 돌기가 있는 블록을 설치하여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도울 수 있도록 한 블록을 뜻합니다. 많은 분들이 경고블록, 유도블록 또는 장애인블록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데 이는 모두 틀린 말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점자블록’이며 종류에 따라 ‘점형블록(경고 기능)’과 ‘선형블록(유도 기능)’으로 나뉘집니다.

또한 색상에 관해서도 잘못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점자블록의 색상은 법률상 황색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에게 색 구별이 왜 굳이 필요하냐는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도 더러 있는데, 점자블록의 색을 정한 이유는 전맹(중증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약시(저시력 시각장애인)를 위해 눈에 잘 띠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점자블록의 설치위치는 접근로, 주출입구, 계단, 엘리베이터 조작버튼, 화장실 등의 전면 0.3m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시각장애인 편의시설로 점자표지판이 있습니다. 점자표지판은 병원, 학교, 사회복지시설, 공공건물 등을 이용할 때 계단, 경사로, 복도의 손잡이 등에 점자가 표기된 표지판을 설치하여 위치와 방향, 용도 및 목적지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종류별로는 벽면에 설치하는 벽면 점자표지판과 손잡이(핸드레일)에 설치하는 손잡이 점자표지판이 있으며, 추가적으로 엘리베이터 조작반(조작버튼), 생활가전제품 조작반 등 기계 자체에 점자가 포함된 일체형 점자표지판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점자의 규격입니다. 많은 업체나 점자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점자의 법적규격이 있다는 점을 간과하는데, 점의 돌출형태는 반드시 반구형(구를 반으로 나눈 형태)으로 하며 점과 점사이의 간격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규격에 맞게 설치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점자안내판을 들 수 있습니다. 흔히 ‘촉지도’라고 하는데 시각장애인을 위해 건물 내 주요 동선을 돌출된 선과 점자로 표현한 것입니다.

특정 지점에 설치하여 목표지점까지의 보행코스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설치 위치와 형태에 따라 독립된 구조물로 설치된 스탠드형과 벽에 부착된 벽면형이 있습니다. 구성은 일반적으로 건물 소개 및 대략적인 진행방향을 표기한 ‘안내문’, 공간배치 및 위치정보를 볼록 튀어나온 선과 점으로 표기하고 현재 위치를 점자로 표기한 ‘촉지도’로 나눌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범례, 층별 안내, 직원 호출 버튼 등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설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편의시설에 대한 홍보가 미미했다는 점도 원인이 되겠지만 그보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정작 시각장애인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에 본 센터는 업체 및 전문가와 함께 점자안내판의 표준화 방안을 모색 중이며, 보다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장치가 있습니다. 음성안내장치의 종류로는 횡단보도 신호기에 설치하는 음향신호기, 기차 및 지하철의 주요 시설, 학교, 병원, 공공기관 등의 주출입구에 설치하는 음성유도기, 사람의 목소리나 알림음 등으로 정보를 알려주는 기타음향신호장치 및 기타유도신호장치 등이 있습니다.(음성: 사람의 성대에서 나오는 소리, 음향: 물체에서 나는 소리-편집자 설명)

음향신호기, 음성유도기는 자체 무선규격이 있어 해당 규격을 준수해야하며 기타 음향신호장치 및 유도장치는 맹학교나 시각장애인복지관 등 시각장애인 전용시설의 접근로에 설치하여 주기적으로 동작음을 발생시켜 시각장애인을 유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엘리베이터 등에는 시설 자체에 음향 및 음성을 들려주어 시각장애인의 이용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표적인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로 점자블록, 점자표지판, 점자안내판, 음성안내장치에 대해 핵심만 정리해보았습니다. 설치하는 위치만 봐도 4가지 편의시설의 성격이 얼마나 다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점자블록은 바닥에, 점자표지판은 벽면과 손잡이에, 점자안내판은 주출입구 등 일정 공간에, 심지어 음성안내장치는 무선으로 동작을 하는 시설입니다. 어찌 보면 다를 수 있는 이들이 상호 유기적(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짐-편집자 설명)이고 보완적인 관계에서 서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음성안내장치의 무선동작으로 전반적인 방향을 인지한 후 점자블록을 통해 건물에 접근할 수 있으며, 점자안내판을 통해 실내 위치를 파악하고 점자표지판으로 목적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연속적이며 유기적인 설치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의 필수적인 요건이라 사료됩니다.

지체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휠체어가 통과할 수 있는 폭을 확보하고, 엘리베이터와 장애인 전용화장실 설치하는 것 등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에 비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의 까다롭고 섬세한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관심과 배려가 필요할 것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에 대해 더욱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싶고 하고자 하는 이야기도 많으나 지면상 여기서 줄여야할 것 같습니다. 본 센터 홈페이지에 이에 관한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의 홈페이지 주소를 참조하시길 바라며, 또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증진센터에도 많은 독려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각장애인의 편의증진센터 홈페이지 주소 및 연락처  
www.kbufac.or.kr / 02-6925-1137

## 장애인계 뉴스

### 1. 2013년 장애인 일자리사업, 어떻게 달라지나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홈페이지를 통해 '2013년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를 발표했다. 이를 각 항목별로 정리해보았다.

#### 1) 참여 대상 및 신청 방법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해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 지원, 장애인일자리 확대를 위해 진행되어 오고 있다. 현재 장애인일자리사업은 행정도우미(일반형, 전담 지원형), 복지일자리(일반형, 특수교육-복지 연계형),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 등 총 3가지로 나뉜다.

행정도우미는 전국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공공기관 등에 장애인을 배치해 전반적인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3,500명의 행정도우미를 배치할 계획이며,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일반형 행정도우미는 장애인(사회)복지 담당자의 업무 보조 및 장애인(사회)복지 민원 처리를 맡고, 전담 지원형 행정도우미는 장애인일자리사업 담당자 업무지원,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니터링 및 지원 등의 업무를 맡는다.

복지일자리는 장애유형별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보급하여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직업생활 및 사회참여 경험을 제공하는 일자리로, 올해 7,700명이 참여한다. 일반형 복지일자리는 만 18세 이상의 등록장애인, 특수교육-복지연계형 복지일자리는 2013년 3월 기준 특수교육기관 고등학교 3학년 또는 전공과 재학생이면 참여 할 수 있다. 일반형 복지일자리와 특수교육-복지연계형 복지일자리는 참여자에 따른 맞춤형 직무수행으로 푸드은행원, 도서관 사서 도우미 등 19가지 일자리에 배치된다. 특수교육-복지연계형 복지일자리는 특수교육기관,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직무배치 전 8시간(1~2일) 이내의 사전교육을 실시한 뒤 직무에 배치된다.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은 올해 300명 규모로 진행되며, 노인복지관, 경로당을 이용자를 대상으로 전문 안마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청 대상은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은 만 18세 이상 등록 시각장애인이다.

단,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권 및 수급비의 영향이 미칠 수 있으므로 거주지역의 관할 시·군·구청 장애인일자리사업 담당부서에 연락해 안내를 받아야 한다.

#### 2) 사업 운영기간 및 근로시간, 급여 변경

기존의 각 사업별 운영 기간이 9개월(일반형 행정도우미), 12개월(특수교육-복지 연계형 복지일자리)로 각각 달랐으나 올해부터는 1월부터 12월까지 총 12개월 근무로 통일된다. 또한 장애인 행정도우미의 경우 기존 주 32시간(주 4일, 월 87만 7천원) 근무였던 반면 주 40시간(주 5일) 근무로 월 101만 6천원으로 변경된다. 일반형·특수교육-복지 연계형 복지일자리는 월 56시간, 월 25만 9천원에서 1만 4천원 오른 월 27만 3천원으로 변경된다.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일자리는 주 25시간, 월 100만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 3) 사업 참여자 우선선발기준

일반형 행정도우미, 전담 지원형 행정도우미,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일자리 사업의 우

선 선발기준도 변경됐다. 그동안 우선 선발기준이 1순위가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 2순위가 취업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이었으나 앞으로는 1순위가 '사업에 신규로 참여하는 1~3급의 중증장애인', 2순위가 '1~3급 중증장애인, 여성장애인,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장애인'으로 바뀐다. 특히 1~3급 중증장애인은 취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2년을 초과해 참여가 가능하다.

#### 4) 사업 장기 참여자에 대한 지원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장기 참여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지원도 실시된다. 2년 이상 장애인행정도우미나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에 참여한 장애인은 2013년 사업이 종료되는 3개월 전부터 반드시 1회 이상 직업재활전문 기관에서 구직상담과 취업알선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온라인 취업지원 시스템 일터로(ilterro.koddi.or.kr)에 구직등록을 해야 한다.

장애인일자리사업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자립기반과(전화 02-2023-8674, 8673) 또는 아래의 한국장애인개발원 연락처로 문의하면 된다.

<지역에 따른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장애인일자리사업 문의처>

- 서울·인천지역: 02-3433-0668
- 대전·충북·충남지역: 02-3433-0781
- 경기·강원지역: 02-3433-0625
- 광주·전북·전남지역: 02-3433-0656
- 부산·울산·경남지역: 02-3433-0712
- 대구·경북·제주지역: 02-3433-0782

## 2.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시각장애인을 위한 '착한 목소리 페스티벌' 개최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지난 1월 19일과 20일 양일간 삼성동 코엑스에서 '착한목소리 페스티벌' 행사를 열었다.

'착한목소리페스티벌'은 일반인의 목소리 기부를 통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영화와 오디오북을 제작하는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사회공헌 프로그램 '착한 도서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번 행사에는 주최 측 추산 6만 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페스티벌에는 목소리 콘테스트와 함께 전시존, 체험존, 무대존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참가자들의 흥미를 더했다.

목소리 기부 희망자들은 전문성우들 앞에서 내레이션 문구를 낭독하는 1차 테스트에 이어, 합격자들은 화면해설 시나리오를 읽는 2차 테스트까지 받았다. 현장심사는 케이블채널 인기 프로그램 '롤러코스터'의 성우 서혜정 씨와 배우 차태현 씨의 어머니 성우 최수민 씨 등 전문 성우 30명이 맡았다.

19일 열린 무대행사에는 개그맨 서경석 씨가 사회를 맡고 시각장애인으로 구성된 한빛예술단 앙상블 공연, 서혜정 씨를 비롯한 전문 성우 5명과 MC서경석이 참여한 '함께 하는 화면해설 이야기'가 이어졌다. 특히 리차드 힐 스탠다드차타드은행장과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착한 도서관 프로젝트'의 모델 겸 홍보대사인 배우 박유천이 직접 무대 위에 올라 큰 환호를 받았다.

지난 1월 22일 1,2차 오디션을 통과한 최종 선발자 100명이 결정됐으며, 이들은 앞으로 2주간 전문성우의 특별 트레이닝을 받은 뒤 화면해설영화와 오디오북 제작에 참여하게 된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제작되는 영화와 책은 출판기념회를 통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 기증하게 된다.

### 3. 장애인 교통복지 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

국토해양부의 ‘2012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교통복지 수준이 가장 좋은 지역은 서울로 나타났다.

지난 1월 17일 국토해양부는 장애인·고령자 등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지를 지자체별로 조사한 ‘2012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교통약자 인구는 전체인구의 약 24.5%인 1,241만 명 수준이다.

**\* 교통약자** :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

특별시·광역시 교통수단, 여객시설(터미널, 철도역, 공항 등의 시설), 도로(보행환경)를 대상으로 한 이동편의시설 설치 만족도는 61.2%로, 2011년 60.2%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다.

기준적합 설치율을 보면 교통수단 중에는 항공기(98.0%)가 가장 높았고, 노후 선박이 대부분인 여객선(16.8%)이 가장 낮게 조사되었다. 여객시설의 기준적합 설치율은 철도역사(82.0%)가 가장 높고, 버스정류장(45.2%)이 가장 낮았다.

**\* 기준적합 설치율** : 이동편의시설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상의 세부항목별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는 정도

만족도에서는 교통수단의 경우 철도의 만족도(66.6%)가 가장 높았고, 여객선의 만족도(59.6%)가 가장 낮았으며, 여객시설은 공항의 만족도(65.1%)가 가장 높고, 버스터미널의 만족도(59.2%)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교통복지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저상버스 보급율, 특별교통수단 보급율 등 10개 기준으로 각 지자체별 교통복지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서울이 전체 분야에서 상위 수준으로 평가되어 7개 도시(인천, , , 울산, , ) 중 교통복지 수준이 가장 높게 평가되었다. 인천이 2위로 뒤를 이었으며, 광주광역시는 2011년에 이어 가장 낮은 순위를 차지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 및 관련기관에 시정을 요구하고, 법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시설은 개선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등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 4. 시각장애인과 책 사이의 거리 좀 더 가까워지려면...

새해를 맞으면 많은 이들이 한해 계획을 세우곤 한다. 모두가 다른 삶을 살고 있지만 단골로 등장하는 새해계획은 거의 비슷한 것 같다. 운동, 다이어트, 금연, 연애, 결혼, 공부 그리고 독서 등이 그것이다. 독자들의 새해계획을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시각장애인들에

게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있는 서울도서관 장애인자료실과 국립장애인도서관을 다녀왔다.

서울도서관은 과거 서울시청 본관을 리모델링한 건물로, 1층에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자료실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점자도서, 화면해설영화, 촉각도서, 오디오북 등이 비치되어 있고, 점자키보드·점자프린터·화면확대기 등 보조공학기기도 설치되어 있다. 한소네와 센스북 등 휴대용 보조기기가 필요한 경우 도서관 내에서 대여도 가능하다.

이곳에는 대면낭독실(대면낭독: 자원봉사자가 원하는 책을 마주앉아 읽어 주는 서비스) 1개와 수화영상실 1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대면낭독실의 경우 도서관에 비치된 책이 아니어도 본인이 소장하고 있는 책을 가져와 낭독을 부탁해도 무방하다. 전공도서나 전문도서의 텍스트파일이나 음성파일을 구할 수 없어 어려움을 겪는 시각장애인이라면 이용해보자 하다. 평일이용시간이 저녁 9시까지인 점도 큰 장점이다. 직장을 다니는 시각장애인은 퇴근 후 이용할 수 있다. 대면낭독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2~3일 전에 신청을 해야 한다. 책나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어, 방문이 어려운 시각장애인의 경우 원하는 점자도서를 대출신청하면 무료로 집에서 받아볼 수 있다. 대여기간은 30일이다.

사실 새로 문을 연 곳이다 보니 아직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이 확충되어있지는 않다. 장애인자료실을 맡고 있는 신명진 사서는 “시각장애인분들이 많이 방문하셔서 시설을 이용하시고 불편한 점을 말씀해주신다면 도서관 시설이 점차 발전해갈 수 있을 것이다”라며 시각장애인들의 이용을 부탁했다. 서울도서관은 지하철 1호선과 2호선 서울시청역 5번 출구에서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해있다.

대면낭독실 이용 신청 및 장애인자료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화 02-2133-0263~0264(서울도서관 장애인자료실)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다음으로 가볼 곳은 국립장애인도서관이다. 국립장애인도서관 내 장애인정보누리터에는 대면낭독실 3곳과 영상실 3곳이 있어 원하는 책의 대면낭독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화면해설영화도 시청할 수 있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은 도서관 내부에 비치된 책만 낭독이 가능하며 외부에서 가져온 개인 소장 책은 낭독이 불가능하다.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최소 2일전 신청해야 한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직접 방문을 하기보다 대체자료를 신청해서 받아 보는 것을 추천하고 싶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을 이용하고자할 경우 회원가입이 필수이다. 회원가입은 홈페이지와 전화로 이루어지며, 홈페이지를 통해 도서관을 방문하지 않고 대체자료를 신청해 받아볼 수 있다. 홈페이지주소와 문의전화번호는 다음과 같다.

-홈페이지 주소: <http://nlid.nlid.go.kr/able>

-전화: 02-3483-8886~8887

두 도서관 모두 각각의 장점을 갖고 있지만 대체자료에 관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었다. 서울도서관 장애인자료실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대체자료의 양이 많지 않았으며, 국립장애인도서관의 경우 대체자료제작을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에서 받아보기까지 최소 2개월이 소요되었다.

지난 호 브레일 타임즈 장애인계 뉴스에서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서 시각장애인 및 활자장애인의 저작물 접근성 강화를 위한 조약 체결이 임박했다는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조약이 체결될 경우 시각장애인 대체자료 제작에 걸림돌이 되었던 저작권 문제가 개선되어 시각장애인들은 보다 많은 자료를 대체자료를 통해 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조약 체결과 관련해 김영일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은 “도서관법에는 출판사가 디지털파일을 국립장애인도서관에 제공해야하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의무사항은 아

니다보니, 파일이 유출될 수 있다는 사유를 내세워 파일을 제공해주지 않고 있다. 조약이 체결되면 책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원서를 구하는 일도 수월해질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번 조약이 체결되면 시각장애인 대체자료 제작의 폭이 넓어지고 그만큼 시각장애인과 책 사이의 거리는 더욱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가들은 시각장애인이 원하는 자료를 대체자료 형태로 받아보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도 필요하다고 말한다. 도서관에 방문해 필요한 것들을 직접 요청하고 요구한다면 개선될 여지도 커진다는 것이다. 출지 않은 주말 도서관을 방문해 대면상담 서비스도 받아보고 점자도서도 읽어보고, 부족한 서비스가 있다면 담당 사서에게 “이런 점을 고쳐주세요”라고 말해보는 것은 어떨까.

## 5. 서울시, 장애인차별금지법 전면시행 대비 웹 접근성 교육 실시

서울시는 지난 1월 15일 장애인차별금지법 전면 시행에 대비해 시각장애인들이 손쉽게 정보통신 기기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웹 표준 향상을 위한 전문 교육'을 실시했다.

웹 접근성이란 시각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조기기에서 이미지를 인식할 수 있도록 보조 설명을 달아주거나 청각장애인을 위해 동영상에 자막을 제공하는 등 홈페이지 정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오는 4월 11일부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모든 법인은 웹 접근성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한다. 이를 위반하는 공공기관과 법인은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서울 소재 공공기관 및 법인 홈페이지와 모바일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서울시청별관에서 개최됐으며, 서울시는 적용방법과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웹 접근성 지침과 함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접근성에 대한 교육도 함께 실시했다.

2012년도 행정안전부 주관 웹 접근성 점검에서 ‘매우 우수’ 평가를 받은 서울시의 홈페이지 개선 경험과 노하우도 함께 공개됐다. 이날 교육에는 서울시 자치구와 복지시설, 투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홈페이지 담당자는 물론 일반 시민, 법인 홈페이지 개발자 등 웹 접근성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참석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웹 접근성 교육을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서울시 전체 홈페이지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를 통해 웹서비스 품질을 높ی겠다”고 밝혔다.

## 6. 경남은행, 지방은행 최초로 ‘점자카드’ 출시

경남은행(은행장 박영빈)은 시각장애인들의 금융편의를 위해 지방은행으로는 처음으로 ‘점자카드’를 출시했다.

이번에 제작된 점자카드의 전면에는 상품명, 카드번호, 유효기한 등의 주요 정보가 점자로 입력되어있다.

점자카드로 발급 가능한 카드의 종류에는 신용카드(New단디카드·그린카드) 2종과 체크카드(KNB그린체크카드·KNB그린체크후불교통카드) 2종 등 총 4종이다. 경남은행은 향후 점자카드의 종류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점자카드 출시로 시각장애인들이 카드 이용 시 겪었던 불편이 다소 줄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만간 점자와 음성지원이 이뤄지는 상품안내장과 이용대금명세서를 개발·지원해 편의성을 높일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은행은 점자카드 출시에 앞서 시각장애인 전용 콜센터 서비스, 시·청각장애인 전용 현금자동입출금기 운영, 점자 보안카드 무료 발급 등 장애를 가진 고객들을 배려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

## 7. 시각장애인 덕정역 선로 추락...한국철도공사 상대로 1,500만원 소송

지난해 경기도 양주시 덕정역에서 추락사고로 중상을 입은 시각장애인 김모 씨(20대, 시각장애 1급)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와 함께 지난해 12월 27일 덕정역의 관리주체인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1,500만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14일 경기도 양주시 경원선 덕정역 선로에 추락해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었다. 반대편 승강장으로 들어오는 전철 소리를 자신이 타야 할 열차로 오인해 탑승하려다 발을 헛디뎠다 선로 아래로 추락한 것이다.

인권센터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하자 덕정역 측은 중상을 입은 김씨를 119에 연락해 응급 조치를 취하는 대신 일어나 걸어 보라며 일으키고, 승강장으로 올라가기 위해 선로 끝까지 걸어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당시 덕정역에는 스크린도어도 설치되지 않았고 안전요원도 없었다. 김씨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사무실을 찾으려 해도 유도블록이 사무실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김씨는 “평소 덕정역을 수시로 이용할뿐더러 당시 흰 지팡이도 있었기 때문에 역무원이 역사 내 또는 승강장을 제대로 관찰했다면 시각장애인이 출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철 이용에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었다”고 호소했다.

김씨는 현재까지도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전철을 타지 못해 학교를 휴학한 상태로, 인권센터와 김씨는 덕정역의 관리주체인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1,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8. 양산시, 중증시각장애인에게 점자 주민등록증 발급

경상남도 양산시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양산시 거주 중증시각장애인에게 점자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도로명주소 전환 후 주민등록증에 도로명주소 표기 작업을 하고 있으나 시각장애인이 이를 인지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도로명주소를 점자로 표기한 주민등록증 발급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점자 주민등록증은 투명 점자스티커를 기존 주민등록증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앞면에는 ‘주민등록증’ 명칭과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점자로 표기되며, 뒷면에는 도로명주소가 표기된다. 이는 기존 주민등록증의 위·변조 방지요소에 손상을 주지 않고 내용을 모두 표기할 수 있는 방식이다.

점자 주민등록증 신청을 원하는 시각장애인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

화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양산시 관내에 등록된 시각장애인은 1,175명으로 양산시는 이들에게 개별적으로 점자 주민등록증 발급을 안내할 계획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점자 주민등록증 발급을 통해 시각장애인들의 불편 해소는 물론 도로명주소 홍보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사람이야기

**“약자를 먼저 생각하는, 친구 같이 편안한 변호사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국내 첫 시각장애인 변호사 김재왕 씨**

브레일 타임즈의 2013년 첫 인터뷰 상대는 국내 최초의 시각장애인 변호사 김재왕 씨다. 그는 지난 2009년 서울대 로스쿨 입학 당시에도 브레일 타임즈와 인터뷰를 가진 적이 있다. 김재왕 씨는 처음으로 두 번의 인터뷰를 한 주인공이라는, 또 다른 최초의 기록을 브레일 타임즈에도 남기게 되었다.

지난해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그는 현재 공익변호사단체인 ‘희망을 만드는 법’에서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장애인 선거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한 소송을 맡기도 했다.

**-‘희망을 만드는 법(이하 희망법)’은 어떻게 함께 하게 되셨는지.**

“지금은 7명이지만 처음 시작할 때는 변호사 6명이 모여 만든 단체였어요. 2명은 현직 변호사, 2명은 작년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신입 변호사, 저를 포함한 나머지 둘은 로스쿨 졸업생이었죠. 단체가 설립된 건 2012년인데 준비는 제가 로스쿨 3학년이던 2011년부터 시작했어요. 다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원이었는데, 다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인권 쪽 활동을 하고 싶은데 자리는 별로 없고...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 단체를 직접 만들게 됐지요. 지금은 사무적인 업무를 도와주시는 사무장님도 오셔서 총 7명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1988년 그 동안 민권 및 인권, 시국사건의 변론을 주로 해온 중진변호사 30명과 소장변호사 16명이 참여해 결성한 변호사 단체로, 현재는 250명의 변호사가 회원으로 활동 중이며 인권관련 활동을 하고 있음-편집자 설명

**-‘희망법’은 어떤 단체인가요.**

“공익, 인권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전업변호사 모임입니다. 장애인 인권, 이주난민, 성적소수자, 공익인권단체 지원이 주요 활동 분야이고 공익소송과 공익인권법 실무교육, 연구 프로젝트, 출판사업 등을 하고 있어요. 국가기관이나 사기업에 의한 인권침해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요.”

**-인권에는 언제부터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글쎄요. 뭔가 특별한 계기가 있길 바라시는 것 같은데 사실 그런 건 아니었어요. 대학 다닐 때부터 관심이 있었고 장애와 상관없이 비장애인일 때부터 인권에 관심이 있었어요.”

**-비영리단체라면, 운영비는 어떻게 충당하시나요.**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후원금 모금은 잘 되시나요?**

“아직 그렇진 않죠. 6명의 변호사 중 3명은 지인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서울대 로스쿨 동기들이 2년 동안 월급의 일부를 모아 후원해주고 있고, 사법연수원을 졸업한 두 명의 변호사는 연수원 동기들이 3년간 초기정착을 위해 지원을 해주는 기금이 있어서 도움을 받고 있지요. 거기에 저희가 알음알음 모아온 후원, 연구용역 등을 통해서

생기는 기타 수입 등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단체를 만들 때 초기자금으로 개인 사비를 조금씩 모아둔 것도 있고요. 그렇지만 아직은 적자지요. 많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지요”

김재왕 씨가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한 것은 아니다. 서울대학교 생물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교 대학원에서 생물학을 전공하고 있던 중 주변시야가 점점 좁아지는 것을 느꼈다. 병원에서는 시신경이 죽어간다고 했다. 증상은 녹내장과 비슷하지만 정확한 병명이나 원인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생물학이라는 학문의 특성상 시각장애를 갖고 학업을 이어가기 어려웠다. 2003년 결국 대학원을 그만두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상담원으로 근무를 시작했는데, 그때 새로운 길을 발견하게 된다. 함께 일하던 분이 로스쿨 설명회가 있으니 지원보지 않겠냐는 조언을 해준 것이다. 현재 하는 일과도 관련이 있으니 로스쿨에 가면 잘할 수 있을 거라는 격려와 함께 말이다. 무엇보다 인권위에서 함께 근무하며 만난 아내의 지지가 큰 힘이 됐다.

결국 그는 특별전형으로 서울대학교 로스쿨 1기생이 되었고 인권변호사라는 지금의 자리에 이르게 됐다.

**-시각장애로 인해 로스쿨에서 공부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 같다.**

“어려웠죠. 근데 저보다 먼저 서울대 법대에 입학한 시각장애 학생이 있었어요. 그렇다보니 학교 측에서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는 아니었지요. 로스쿨에 입학한 시각장애인은 제가 처음이었지만 법대에서 이미 시각장애 학생을 대한 경험이 있어서 아주 맨땅에 헤딩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로스쿨의 평가 항목 중에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도 들어있다 보니 학교 측에서는 제가 요구한 것들은 거의 다 받아들여주셨어요. 교재를 파일로 요청한다든가 시험을 볼 때 다른 학생들과 별도의 공간에서, 컴퓨터로 시험을 보고 시험문제도 파일로 받고 시험시간도 연장해달라고 했고. 그런 기본적인 것들은 갖추어져 있었어요.

처음 입학했을 때 학교차원에서 도우미를 지원해줬는데 사실 그 부분이 조금 애매했어요. 수업을 듣다보면 예정에 없던 모임이 생기기도 하고 일정이 바뀔 수도 있는데 이동도우미를 해주는 친구가 기다리고 있다 보니 오히려 그런 부분이 생활에 제약이 되기도 했지요.”

**-2009년 로스쿨에 합격하고 브레이크 타임즈와 인터뷰를 했을 당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시각장애인이 부딪히는 것부터 하나하나 바꾸어 보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제도의 미흡에서 오는 불편한 점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느끼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어려워합니다. 그런 곳에 제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이런 법조인이 되고 싶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그 다짐은 변함없으신가요?**

“제가 그런 멋진 말을 했었군요.(웃음) 네, 그런 일을 하려고 단체를 만든 거니까 그 다짐은 그대로라고 할 수 있지요.”

**-시각장애인변호사로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인가요.**

“자료를 읽는 게 가장 힘들지요. 로스쿨 다닐 때만해도 교재를 파일로 받았는데, 법원에서 만든 기록이나 특히 상대방이 제출한 기록은 파일로 받기가 쉽지 않아요. 문서를 스캔하고 문자 정보를 추출해서 읽고는 있는데 변환과정을 거쳐야하니깐 어려움이 많지요.”

**-법원에 파일을 요구할 수는 없나요.**

“방법이 있긴 하지만 상대방이 법률상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법원이든

검찰이든 기록을 가져올 때 파일형태로 입수하지 않고 주로 복사를 해오거든요. 그걸 등사라고 하는데, 등사를 해오면 스캔을 해도 이미지파일이니까. 그 점이 아직까지는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장애인차별금지법도 있고 계속 요구를 하면 앞으로는 나아질 것 같아요.”

**-희망법 활동을 하며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최근 진행한 선거정보접근권 소송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처음 맡은 사건이기도 했고 소송 당사자중 청각장애인도 있었는데, 사실 청각장애인은 처음 뵈 거거든요. 그분도 제가 처음 본 시각장애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다른 유형의 장애인을 만난 경험이 새로웠어요. 보통 비시각장애인은 청각장애인이 수화를 하는 동안 말을 하지 않는데, 저는 그분이 수화를 하고 계시는지 가만히 계신건지 보이지가 않으니까, 계속 말을 했더니 수화통역 하시는 분이 지금 수화를 하고 있다, 본인이 수화통역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앞으로 다른 유형의 장애인들도 많이 만나게 될 테니 그분들에 대한 이해도 필요할 것 같더군요.”

**-법조인을 꿈꾸는 시각장애인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후배 법조인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어요. 공부하는 게 쉬운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그래도 전산화가 잘되어있는 편이에요. 특히 법률이나 판례정보 같은 것들은 웬만하면 인터넷검색으로도 찾아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공계 쪽보다는 공부하기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인권관련 활동을 하고 싶어 이쪽 일을 하고 있지만 꼭 시각장애인변호사라고 해서 공익적인 일만 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일반회사에서 법무 일을 맡을 수도 있고 기업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을 거고요. 방향은 다양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변호사가 되고 싶으신가요.**

“저는 친구 같은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법이라고 하면 다들 어려워하시잖아요. 법자체가 변호사들 밥벌어먹으라고 그런 건지 어려운 말이나 한자도 너무 많고요. 그런 것들을 쉽게 설명해줄 수 있는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장애에 대해 갖고 있는 잘못된 인식을 개선해나가고 싶습니다.”

법조인이라는 직업 때문일까 인터뷰 섭외를 위해 처음 전화를 드릴 때 조금은 긴장도 됐다. 드라마나 뉴스를 통해 접해온 변호사는 차갑고 다가서기 어려운 이미지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김재왕 변호사의 목소리는 예상과는 다르게 상냥하고 다정했다. 실제로 만나본 그의 모습 역시 선한 미소와 다감한 말투로 대화하는 사람을 따뜻하게 만드는, 한마디로 TV에서 보던 변호사와 매우 다른 모습이었다. 그와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오며 김재왕 변호사라면 그가 말한 친구 같은 변호사가 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10년 후, 20년 후 그의 모습이 기대된다.

## 독자마당

### 소리로 마음을 읽는 선생님

#### 김홍엽(천안인애학교 교사)

필자가 지적장애 특수학교인 인애학교에 근무한지도 어느덧 5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시각장애 교사로서 지적장애 학교에 발령받아 주위의 우려와 관심 속에 교직생활을 시작한지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5년이란 시간이 흐른 것이다. 이번 기회를 빌려 필자 자신을 돌아보고 앞으로 교사로서 가야할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보려 한다.

처음 부임했던 5년 전을 떠올리면, 학생들을 대할 때의 두려움이나 걱정이 지금은 많이 사라졌다. 처음 지적장애특수학교인 인애학교에 왔을 때 고향을 지르고 상동행동(같은 동작은 일정기간 반복하는 것-편집자 설명)을 하는 학생들을 보며 내 결정을 후회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그때마다 더 큰 시련과 절망을 이겨낸 경험을 떠올리며 과거에 그래온 것처럼, 이번에도 포기하지 않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싶었다. 학생들을 피하지 않고 마주하며 그들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이제는 필자의 팬이 있을 정도로 나름 인기 있는 선생님이 되었다.

시각장애인이라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지적장애학교에서 근무하며 느낀 어려움들은 사실 필자가 가진 장애보다는 지적장애에 대한 무지와 편견으로 인한 것이었다. 필자 자신이 장애인이지만 정작 다른 유형의 장애인들에 대해 아는 것은 맹학교에서 보았던 지적장애 학생들의 모습과 대학교 때 어렵듯이 배운 이론적인 지식이 전부였다. 지적장애인이란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하고 문제행동만을 일삼는 장애인일 뿐이라는 생각을 내면 깊숙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필자가 지적장애학교에서 근무하는 것을 우려한 분들 중에는 비시각장애인보다는 시각장애인들이 더 많았다. 아마도 나처럼 타 장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편견을 갖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요즘 필자는 하상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온소리도서관’이라는 사이트에서 기자단으로 활동하고 있다. 여기서 필자가 주로 게재하는 글은 지적장애와 같은 타 장애에 관한 것들이다. 장애인이면서 타 장애에 대한 편견을 갖는 것은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에게 가하는 차별보다 더한 차별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필자의 글을 통해 시각장애인들이 갖고 있는 지적장애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개선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그동안 나와 같은 시각장애인 교사들이 많이 배출되었고 맹학교뿐만 아니라 일반학교와 특수학교 등에서 제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다. 2011년에는 이들이 모여 ‘한국시각장애교사회’라는 모임을 만들었는데, 수업이나 생활지도에 대한 노하우와 자료를 공유하고 시각장애인 교사들의 권익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필자는 ‘한국시각장애교사회’에서 임원을 맡고 있으며, 후배교사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를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언젠가 대구광역시에 임용된 특수교사 후배가 발령을 받고 걱정이 되어 필자에게 연락을 한 적이 있다. 너무 걱정되고 두렵기까지 하다는 후배 교사의 말을 들으며 필자의 신입 시절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후배에게 할 수 있다는 용기와 함께 가지고 있던 자료도 아낌없이 주었다. 그리고 지적장애 학생을 대할 때의 태도와 문제행동을 중재하는 데 있어 나름의 노하우도 전수해 주었다. 2011년에는 경기도 지역에 합격한 2명의 후배 교사들을 우리 학교에 초대하여 교재·교구의 활용과 지적장애 학교의 상황에 대해 설명해주었다. 그

후배들이 어엿한 교사로 성장한 모습을 보고 있다면 그때의 수고가 전혀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후배들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시각장애인 교사로서 타 유형 장애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필자 자신을 알리기 위한 활동도 하고 있다. 충청남도 지역은 시각장애특수학교가 없다보니 시각장애인 교사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부족했다. 필자가 어떻게 컴퓨터를 활용하고 학교생활을 하는지 알리기 위해 교내 자율연수로 안마 교육을 실행했고 매년 점자교실을 열어 시각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조금은 불편하지만 그래도 큰 어려움 없이 교사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주위 선생님들의 따뜻한 배려와 도움 때문일 것이다.

최근 들어 사범대에 진학한 시각장애 학생들 중에는 임용고시를 통해 일반학교와 특수학교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점 때문에 필자가 속한 한국시각장애교사회에서는 시각장애 교사들의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가령 지적장애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의 경우 직무분석을 통해 한정되어 있는 교과목을 다양하게 변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시각장애로 인해 신입교사 때 겪는 시행착오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인애학교에 5년 간 있으면서 느낀 점은 학생들을 대할 때 시각이란 감각보다 중요한 것은 진심이라는 점이다. 따뜻한 손길과 열린 마음을 갖고 학생들에게 다가가면 자기 자신을 숨겨 둔 자폐 학생들마저도 마음을 조금씩 열어주었다. 많이 도와주지도 못 하고 해준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나를 좋아하며 따르는 학생들을 대할 때면 나 또한 기분이 참 좋다.

교사로서 바람이 있다면, 필자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학생들과 마음껏 뛰놀고 졸업을 한 후에도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장애인이기에 특별한 교사라 여겨지기보다, 그저 한 사람의 특수교사 김홍엽이고 싶다.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 동정[1월 1일~1월 15일]

최동익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은 2013년 1월 2일(수요일) 한시련 사무식을 주재하는 것으로 새해 첫 일정을 시작했다. 이어 국제보건의료재단 사무총장과 오찬을 가졌다. 최동익 의원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이날 국민일보 등의 매체에는 지난 해 8월말 최동익 의원이 발의한 사회복지단체 지방세 영구 면제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3일(목요일)에는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담당자들과 중증장애인고용활성화 방안을,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담당자들과는 장애인심부름센터 규정 등에 관한 현안을 논의했다.

4일(금요일)에는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팀 담당자들과 장애인활동지원 야간수당 등에 관해 논의했으며, 최동익 의원실 워크숍을 주재했다.

7일(월요일)에는 민주통합당 조선의원모임 총회에 참석한 후, 국립암센터에서 장애인건강권 관련 강의를 진행했다. 같은 날 장애인정보접근권 강화를 위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국민일보 등의 언론 매체에는 최동익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마약류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관한 기사가 보도되었다.

8일(화요일)에는 민주통합당 조선의원모임 간담회에 참석했으며, 한시련 고문변호사, 한시련 하동지회장, 인천국제장애인경기대회준비위원회 사무총장과 차례로 면담을 나누었다.

9일(수요일)에는 민주통합당 당무회의 및 의원총회 연석회의에 참석했으며, 장애인계신년인사회에도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어 민주통합당 동작을 지역위원회 신년하례회 참석 후, 국제시각장애인스포츠포럼(IBSA) 국제대회 실사단과의 만찬을 주재했다.

10일(목요일)에는 중증장애인 복지전달체계 연구결과발표 토론회와 범사회복지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축사를 했으며, 한시련 직원 워크숍을 주재했다. 이날 뉴스원 등의 언론매체에는 최동익 의원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범사회복지계 신년인사회 참석 관련 내용이 보도되었다.

11일(금요일)에는 한시련 직원 워크숍을 주재하고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커피전문점 카페모아 3호점 개소식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같은 날 유해광고물로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민주통합당 의원모임인 민주동행 총회 겸 대선평가토론회에 참석했다.

12일(토요일)에는 한시련 직원 워크숍을 주재했다. 이날 경제전문 주간지 머니위크에는 최동익 의원이 작년 국정감사 때 지적한 서브스크립션커머스 관련 내용이 보도되었다.(서브스크립션커머스는 매월 신문을 구독하듯 일정 비용을 내면 다양한 제품을 정기적으로 배달해주는 판매방식으로, 일부 서브스크립션커머스 업체들이 불법적인 유통방법을 통해 입수한 물품을 판매해 문제가 되고 있다. 최동익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때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으며, 이를 보완해 정품만을 취급하는 서브스크립션커머스 업체들이 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이다—편집자 설명)

14일(월요일)에는 에이블 뉴스와 인터뷰를 가졌으며, 다음 날인 15일(화요일)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이사회 참석 후, 중도시각장애인재활지원센터 기초재활교육 사업설명회를 주재했다.

## 알쏭달쏭한 우리말 바로 알기(172)

### 1) ‘코르사주’의 순화어: 맵시꽃

맵시꽃은 코르사주를 다듬은 말이다. 코르사주는 ‘옷깃, 가슴, 허리 등에 다는 꽃뭉음’을 뜻하는 말로, 프랑스어에서 유래했다. 우리에게서 영어식 발음인 코사주로 더 많이 알려졌으며, 코사주, 코르사주의 첫 발음인 ‘코’와 ‘꽃’이 발음이 비슷하다보니 꽃사주나 꽃사지라고 부르는 이들도 있다.

생화로 만든 맵시꽃은 여러 공식적인 행사에서 귀빈들의 가슴을 장식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맵시꽃을 옷뿐만 아니라 머리핀이나 신발 등에 부착하여 마치 새로운 장식의 물건을 구입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내기도 한다. 남성들 또한 까만 정장을 주로 입던 예전과는 달리 작은 크기의 맵시꽃을 이용하여 좀 더 밝고 젊은 분위기를 자아내기도 한다. 외래어인 코르사주(코사지)뿐 아니라 그것에서 잘못 유래한 꽃사지, 꽃사주도 모두 맵시꽃으로 쓰면 좋을 것 같다.

#### -예시

- ㄱ. 신발 앞코에 리본이나 맵시꽃(코르사주)을 장식한 디자인은 발볼이 넓은 것을 시각적으로 날씬해 보이게 한다.
- ㄴ. 행사에 참석한 귀빈들 가슴에 생화로 만든 맵시꽃을 달아 드렸다.

### 2) ‘캠프파이어’의 순화어: 모닥불놀이

캠프파이어는 ‘야영지에서 피우는 모닥불 또는 그것을 둘러싸고 하는 놀이나 모임’을 뜻한다. 학교, 회사 또는 각종 동호회 등에서 친목을 다지는 방법으로 모꼬지(흔히 말하는 엠티)나 공동 연수(워크숍), 수련회를 택하곤 한다. 1박 2일이나 2박 3일에 걸쳐 즐겁게 운동이나 게임을 하고, 깊이 있는 대화 시간을 보내며 서로 가까워질 수 있고, 서로 친목을 쌓기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임의 마지막에는 주로 모닥불놀이(캠프파이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운데 모닥불을 피워 놓고 차분한 분위기에서 서로에게 평소에는 꺼내기 어려웠던 말을 하거나 자기반성의 시간으로 삼기도 하고, 남은 불씨를 이용해 바비큐를 해 먹기도 한다. 최근 가족 단위 야영(캠핑)이 인기를 얻고 있는데, 아이들과 함께 야영 장소에서 감자, 고구마 등을 구워먹으며 모닥불놀이를 즐기는 가족들이 많아졌다.

#### -예시

- ㄱ. 산불 방지 및 야영장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야영장 내 모닥불놀이(캠프파이어), 취사 등 야간 야영을 전면 금지키로 했다.
- ㄴ. 수학여행 마지막 날, 어린이들은 모닥불놀이, 사권의 시간, 나의 꿈 발표회 등의 활동으로 우정을 키웠다.

-출처: 국립국어원 「우리말 다듬기」 누리집(홈페이지)/www.malteo.net